**동아시아(東亞細亞 歷史): 새로운 분석의 틀 (Analytic Framework)**

흔히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모르고 있다.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사료를 접근 해야 왜곡의 핵심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만주 대륙을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제국(帝國)들의 흥망성쇠를 결정 하는 핵심 지역의 하나로 그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한 다음; (2) 이 새로이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만주**-**몽골초원**-**중국대륙**이라는 **3극(極)**분석의 틀(Tripolar Framework of Analysis)을 만들어 내고; (3) 이 새로 설정한 인과관계 틀의 타당성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중화(中華) 이념에 근거한 한족 중심의 접근법**

한(漢)족 중심의 중심부-주변부(center-periphery monopolar) 접근법을 보면, 「천하의 중심에는 천자(天子)가 다스리는 한족 중국(中國)이 있고, 그 주변의 비 한족 야만인들은, 중국 천자가 확립한 국제 질서에 순응해, 조공을 바치며 중화 문명의 은택을 보고 살아왔다」는 식으로 동 아시아 역사를 서술한다. 좀 객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유목민족 대 정주-농경 한족”이라는 양극(bipolar) 접근법은 「유목민들이 정주-농경 한족들로부터 공물(貢物), 특혜적 국경 무역, 혹은 왕실간 혼인을 통한 지참금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곡물과 직물 등 생활 필수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을 침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약탈해 갔으나, 한족들이 순순히 생필품들을 유목민에게 제공을 해 주면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엮어 간다. 현실을 무시하는 한족 중심 이념적 사고의 틀 속에는 “만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저 중국의 “동북” 변방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만주 대륙을 동아시아 제국(empire)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핵심 지역의 하나로 그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해야만 할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을 아주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왜곡의 핵: 역사가들이 무시 해 온 만주족 정복왕조**

중국의 사서들을 보면, 대흥안령(大興安嶺) 동쪽의 소위 “야만인”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서부 만주 요서(遼西) 초원 지역의 오환(烏丸), 선비(鮮卑) 부족 등을 동호(東胡)라 불렀고, 중부와 동부 만주의 퉁구스족들을 모두 함께 동이(東夷)라 불렀다. 오환 부족은 3세기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고, 동호라 하면 주로 모용-탁발-거란 등 선비 부족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동이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을 세운 예맥(濊貊) 퉁구스와 숙신(肅愼)-읍루(挹婁)의 후예로서 핵심 만주족의 선조인 말갈(靺鞨)-여진(女眞) 퉁구스로 나뉜다.

중국 대륙을 정복한 이민족 왕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元 1206-1368) 제국 하나만 몽골초원으로부터 내려왔고, 나머지 4개는 만주에서 왔다는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즉, 탁발선비 북위(拓拔鮮卑 北魏 386-534)와 거란 선비 요(契丹鮮卑 遼 907-1125)는 모두 서부 만주 초원지역 출신인 동호-선비(東胡鮮卑) 족들이 세운 나라들이고, 금(金 1115-1234)과 청(淸 1616-1912)은 모두 동부 만주 삼림지역 출신인 여진-만주족이 세운 나라들이다. 후대에 끼친 영향력 이란 측면에서 보면, 서부 만주 출신 명단에다 352년에 북 중국을 차지해 잠시 나마 정복왕조를 한번 실현해 보인 단명의 모용선비 전연(慕容鮮卑 前燕 337-70)도 추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당서에 의하면 징기스칸(r.1206-27)의 몽골족은 거란(契丹)족의 별종인 실위-몽올(蒙兀) 부족에 속한다. 북사(北史)에 의하면 거란족은 서부 만주 우문선비(宇文鮮卑) 족의 후예다. 10세기 초, 요(遼) 시조 야율아보기의 공격을 받은 실위-몽골 부족은 북부 만주 눈강(嫩江)-흑룡강 주변 삼림지역에서 아르군강 동쪽 초원으로 이주했고, 11세기에 와서 오논-케룰렌 강 유역에 정착해 전업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주 그 근본을 따진다면, 징기스칸의 몽골 부족은 서 만주 몽골선비(蒙兀鮮卑) 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슨 큰 비밀도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속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정복 왕조 모두가 만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의 정복왕조들은 북 중국 만을 정복-통치 했지만 당시는 북 중국이 바로 중국을 의미 했고, 남 중국은 미개한 변방 오지의 성격이 강했다. 피난을 내려온 한족 엘리트(僑民/客家)에 의해 남 중국이 오늘 날의 중국과 같이 개발 되자 몽골-원과 만주-청은 중국대륙 전체를 정복 해 버린 것이다.

**한족 제국으로 왜곡된 수와 당: 서만주 선비족 정복왕조의 후계자**

탁발선비 북위는 534년에 고환(高歡)의 동위(534-50)와 우문태(宇文泰)의 서위(535-56)로 갈라졌다. 동위는 북제(550-77)가 된다. 선비 전통이 가장 강했다고 흔히들 말하는 서위는 557년에 북주(557-81)가 되어,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고, 579년에 진(陳)의 강북 땅을 차지해,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북 중국을 재 통일할 수 있었다. 수 (581-618) 나라는 선비족 북주의 후계자 로서 천하를 통일했고, 당(618-907)은 단명의 수 나라를 승계한 것이다.

수 나라를 세운 양견(楊堅)은, 북위-서위-북주(386-535-57-81) 등 선비 정복 왕조에서 6대에 걸쳐 태수와 장군 노릇을 한 관롱(關中隴右/陝西,甘肅) 핵심 선비 지배 씨족 출신 이었다. 수서는 양견의 조상이 후한의 태위 벼슬을 한 양진(震)에서 비롯 한다고 말하지만, 양진의 8대 손으로 모용선비 전연의 북평 태수를 지낸 양현(鉉) 이전으로 올라가면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다. 양현의 아들이며 양견의 5대조인 양원수(元壽)는 무천진(武川鎭)에 자리를 잡고 탁발선비 정복왕조를 섬기기 시작했다. 4대조와 3대조는 북위의 태수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북위의 장군이었다. 양견의 아내인 문헌황후는 무천진 독고신(信)의 딸이다. 독고신은 무천진의 우문태(507-56)를 섬기며, 서위를 세우고, 후에 북주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8주국(八柱國)의 일원이었다. 독고신의 맏딸은 우문태의 장자로 북주의 첫 번째 황제가 된 명제(明帝 r.557-60)와 결혼을 했고, 일곱 번째 딸은 수 문제 (r.581-604) 양견과 결혼을 했고, 넷째 딸은 당 고조 이연의 아버지(李昞)와 결혼을 하였다. 독고신 휘하의 대장군 양충은 우문태에 의해 수국공(隋國公)에 봉해졌다. 양견은 부친 양충의 칭호를 물려 받아 후에 자신이 세운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 양견은 사위인 북주 선제(r.578-80)가 죽자, 8살에 제위를 승계한 정제와 우문씨 친족을 죽여버리고 581년에 수 나라를 세웠다. 양견의 집안은 선비 정복왕조 지배계급의 핵심 씨족에 속한 것이다.

당 고조 이연(r.618-26)의 7대조는 이호(李暠 r.400-17)라 한다. 말인즉 흉노 부족이 오늘날 감숙성 지역에 북량(397-439)을 수립하자, 이호가 훨씬 서쪽에 위치한 돈황 지역으로 가 서량(400-21)을 세웠다 한다. 북량은 421년에 서량을 병탄했고, 북위는 439년에 북량을 정복해 북 중국 통일을 완성한다. 역사가들은 이호를 한족으로, 5호16국의 하나인 서량을 한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이연을 한족으로 간주한다. 이연의 모친과 수 양제의 모친은 자매 사이였다. 이연은 외삼촌인 수 문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으며, 양제의 사촌으로, 당시 가장 세력이 큰 수 나라 장수들 중의 하나이었다. 이연의 5대조는 북위의 홍농 태수, 4대조와 3대조는 무천(武川)에 정착한 북위의 장수이었다.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虎)는 우문태가 서위/북주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 8주국(八柱國) 중 한 명으로, 당국공(唐國公)에 봉해졌다. 이연의 부친(昞)은 독고신의 넷째 딸과 결혼을 했다. 이연의 장인은 북주 대사마 두의 이였고, 장모는 북주 무제의 누님인 양양장공주(襄陽長公主)이었다. 이연의 처는 바로 우문 태의 외손녀이었으며, 그녀는 외삼촌이며 우문태의 차남인 북주 무제(r.560-78)의 궁중 에서 자랐었고, 이연과 결혼하여 이세민을 낳았다. 이연은 당국공 칭호를 물려 받아 후에 자신이 세운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 이연은 양견과 마찬가지로 선비 정복왕조의 핵심 지배씨족 출신인 것이다.

우문태의 외손녀를 모친으로 태어난 당 태종 이세민의 부인 역시 북위-북주 탁발선비 정복왕조 핵심 씨족의 딸이었다. 이연의 부친 이병을 100% 한족으로 간주하는 중국 사학자들은 이세민의 유전자 75%가 선비족의 것이라고 말한다. 고종의 모친인 태종 이세민의 문덕황후 장손씨는 수 나라 장군 장손성(長孫晟)의 딸이다. 성(晟)의 부친과 조부는 북주의 자사(刺史)이었다. 당서 열전은 문덕황후 장손씨의 선조가 북위 탁발씨이며 종실의 장이라고 기록 했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탁발규가 북위를 세운 직후 탁발부족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문덕황후의 6대조인 장손숭을 남부대인으로 삼았다 한다. 중국 사학자 방식으로 생각을 해도 당 고종의 유전자는 87.5%만 선비족의 것이다.

**중국 역사: 이민족 지배가 단 두 번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

당이 멸망한지 220년 후인 "1127년," 애당초 북경 주변을 포기했던 한족 송 왕조는 다시 회수(淮水) 아래로 밀려 난다. 중원을 내어주고 정복왕조와의 국경선이 양자강 유역으로까지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된 한족들은, 역사 왜곡의 길을 택하지 않는 한, 중화(中原華夏)를 내세우기가 힘들게 되었다. 사학자들은 화하(華夏)-만이(蠻夷)라는 문화적-민족적 대칭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당을 (선비 정복왕조의 직계 후예가 아니라) 진-한(秦漢)에 필적하는 한족 제국의 귀감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수-당의 성격 구명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수-당을 사학계에서 탁발 선비 정복왕조인 북위-서위-북주의 직계로 분류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지난 2천년 간의 한족 제국의 역사란 것이 (소위 한족에 매번 즉시 흡수 동화되었다는) 이민족에게 간헐적으로 정복 당한 역사가 아니라, (각자 고유의 전통을 고수하려던) 이민족 지배가 단 두 번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가 되는 것이다. 후한이 220년에 멸망한 이후 청조가 멸망하는 1911년 까지, 제대로 된 한족 제국 이란 송(960-1127-1279)과 명(1368-1644)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송은 중국 대륙 남쪽으로 밀려나 북 중국을 차지한 요와 금 조정에 "칭신(稱臣)-조공(朝貢)"을 하며 살았었다.

**만주족 정복왕조: 수적 열세와 농경-한족 통치기구 부재라는 취약점을 극복**

모용 선비를 효시로, 서 만주 선비족들은 소위 “한족을 한족으로 다스린다”는 이한치한책(以漢治漢策)에 입각한 2원통치 조직을 개발해, 수적인 열세와 통치기구 부재라는 취약점을 모두 극복하고 정복왕조를 수립할 수 있었다. 만주 출신 정복왕조 창건자들은, 신생 국가에 충만한 폭발적인 기세를 몰아, 자신들 고유의 부족적 전통에 입각한 국민개병(皆兵) 병민일치(兵民一致) 군사조직을 우선 중앙 집권화하고 독점하면서, 피정복 한족은 (자신의 부족들과 분리해서) 한족 관료들을 임용해 별도로 유교적인 관료 제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2원적 통치조직을 제도화하여 정복왕조를 수립했다. 지나친 중국화와 (군사력의 기반인) 부족 전통의 와해는 정복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게 된다.

**만주족 정복왕조 2원 통치 형태의 진화**

서 만주 모용선비 전연(前燕 337-70)은, 북 중국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동 주변에 거주 하던, 혹은 본토에서 피난을 해 온 한족 전직 관료, 학자 등을 포섭-임용하여 피정복 한족 농민을 다스리는 중국식 관료조직을 완비했다. 부족 전통의 군대는 최고 통치자의 형제, 아들, 조카들이 지휘했다.

탁발선비 북위(北魏 386-534)는 부족(國人)과 한족을 격리하여, 국민개병 군사조직으로 황제 직할 중앙군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북부초원 부족들의 거주 지역은 부족식(國制)으로 다스리고, 북 중국 평원의 한족 밀집 지역은 토착 대지주 호족들로부터 선발된 하급 관리들이, 고위직 선비 귀족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족식으로 다스렸다. 선비족의 전통신앙인 샤머니즘은 무식한 한족 하층민들의 미신과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에 정복자의 공식적인 종교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교사상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사상적인 굴복을 의미했다. 탁발 선비는 서방에서 전파된지 얼마 안 되는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황제를 부처의 현신으로 미화했다. 정복왕조 고유의 탈-유교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적극 장려했던 것이다.

탁발선비 북위-서위-북주의 후계자로 중국을 통일한 수(581-618)와 당(618-907)은 일직이 선비 정복왕조들 통치 하에 그 실효성이 증명된 (선비 세습귀족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족 관료 체제, 균전제, 부병제 등을 통일 중국 현실에 맞도록 개량-강화하고, 통치 이념으로서의 불교를 계속 장려했다. 뿐만 아니라, 전한-후한 때 비정기적 천거-임용 관행을 보조했던 시험(察擧) 제도를, 역사상 최초로, 제한된 규모로나마 정기적으로 시행 되는 "과거(科擧) 제도"로 만들어 중국대륙의 통치 제도를 상징하게 했다.

거란족의 요 왕조(907-1125)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2개의 정부 조직을 가지고 (거란 귀족이 國制로 다스리는) 부족과 (거란 세습귀족의 통제하에 한족 관리가 漢制로 다스리는) 한족을 분리 통치하면서, 거란족이 황제직할 오르도 군대와 부족단위 군대를 모두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통치체제로 진화시켰다.

동 만주 여진족의 금(1115-1234)은 부족 전통에 입각한 병민일치 범-사회군사 “멩안-모우케” 체제로 부족을 모두 조직-동원하고, 정복 한족은 (여진 세습귀족 통제하에) 확대된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한족 관료를 통해 다스리는 체제로 진화시켰다.

서 만주 여진족의 “멩안-모우케” 병민일치 조직은, 거란족을 흡수하고 돌궐족을 협력자로 동원한 몽골 제국(1206-1368)에 전수되어, Pax Mongolica를 실현한다. 하지만 한족으로 한족을 통치하는 완충장치를 훼손 한 원 제국은, 정복왕조 최초로, 유생(儒生)의 지지를 받는 농민 반란에 의해 중국 본토로부터 축출된다.

내몽골의 몽골족을 포섭한 범-만주 청 왕조(1616-1911)는 여진족 금 왕조 보다 한층 더 부족적 전통에 충실 하면서도 중앙집권화된 군사조직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한치한(以漢治漢) 원칙을 강조 해 Pax Manjurica를 실현했다. 만주족의 8기(八旗) 제도는 3극-동아시아의 최후를 장식한 병민일체 범-사회 군사 조직의 최종적 진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민족 정복왕조의 충성스런 협력자로서 한족을 통치할 한족 관료와 향촌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청조의 과거 제도는, 한족 송-명 왕조보다도 대지주 사족들을 한층 더 정주도학(程朱道學) 틀에 옭아맨 최종적 진화 형태가 된다.

수-당이 도입한 시부(詩賦) 중심의 과거제도는, 정복왕조의 세습귀족 지배층이 한족 송-명 왕조에 와서 대지주 사족 출신의 사대부 지배층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제도적 촉매 역할을 했다. 탁발선비 정복왕조가 통치 이념으로 적극 도입한 불교 사상은, 한족의 전통적 도교-유교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 송 대에 와서 정주도학(Neo-Confucianism)을 탄생시키고, 이는 한족 명 왕조 과거제도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반면, 요-금-원-청 정복왕조에서는, 유교적인 과거제도가 이한치한의 도구로 사용 되었을 뿐, 샤머니즘이 가미된 불교를 숭상하는 세습귀족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고대 한일관계(古代 韓日關係): 야마도 왕조의 성립의 Model-Building**

1948년, 동경대의 Egami 교수는, 4세기 말 이후의 일본열도 고분들에서 말뼈, 말 안장, 말 등자, 말 재갈 등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등, "고고학적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일단의 기마민족이 대륙으로부터 건너와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야마도 왕국을 세웠다는 모델을 제시 했다. 고사기-일본서기에 의하면, 신대(神代)에 지상 왕국의 시조로 등장 하는 천손(天孫) 니니기는, 하늘 나라에서 곧장 긴키(近畿)의 야마도(倭)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큐슈로 강림을 한다. 시조가 「큐슈로 내려 온다」는 것은 야마도 왕국이 토착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인대(人代) 건국 시조의 영웅적 동정(東征) 무용담 역시 야마도 왕국이 정복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사기에 의하면, 니니기가 하늘에서 큐슈의 구지봉 정상으로 내려온 직후, “이곳은 한국을 마주 바라 본다(向韓國)”라고 말한다. 에가미는 건국 신화 첫 머리에서 한국이 거론된다는 사실은 천손들의 본향이 한국임을 뜻한다고 믿는다. 1975년, Columbia대학의 Ledyard 교수는 350-380년 기간에 해당하는 혼란스런 일본서기의 기록을 분석한 다음, 346년에 부여가 모용 선비에게 크게 깨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기마민족 정복자가 부여 사람들 이라는 수정 모델을 제시했다. 나는 고사기-일본서기 전편에 흐르는 기록 내용들, 특히 오오진(=호무다) 이후의 기록들에 초점을 맞추어, 4세기 말경(370-90)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야마도 왕국을 세웠고, 천황족의 근원은 백제 왕족이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일본열도 관련 기록의 공백기 (266-413)**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의 왜인(倭人)전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한다: "왜인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산과 섬에 의지하여 읍락국가(國邑)를 이루고 있다. 옛적에는 1백여 국이 있었으며, 한 나라 때 예방하여 배알하는 자가 있었고, 지금 사신과 통역이 왕래하는 국읍은 30여 개다." 동이전에 등장하는 야마일국(邪馬壹國) 여왕 비미호가 위 나라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238년 이었다. 비미호가 남큐슈의 구노국 왕과 싸웠다고 말하는 것은 247년이고, 그 후 어느 때인가 죽었다. 진서 열전은, 태시 (265-74) 초에 왜인이 조공을 했다고 기록했다. 일본서기 신공섭정 66 년 조에 인용된 각주 내용을 보면, 동이전에서 13세 나이로 비미호의 뒤를 이었다고 말하는 일여(壹與)로 추정되는 왜 여왕이 266년에 서진 무제(265-90) 조정에 조공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266년 이후, 진서(晉書) 의회 9년 (413) 조에 “야마도”국(倭國)이 동진의 안제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까지, 왜인과 관련 된 기록은 중국 정사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야마도 왕이 남조 조정으로부터 최초로 공식 칭호를 받은 기록은 425-43년 간에야 나온다. 238-66년간에는 일본열도에 다양한 명칭을 가진 30여 개의 국읍(邑落國家)이 있었다. 큐슈의 30 여 개의 국읍이 기내(畿內)의 1개로 통일 된 야마도 국으로 바뀌어 중국 정사에 나타나게 만든 이 147년 공백기가 바로 야마도 왕국의 성립 시기일 가능 성이 큰 것이다.

 진서는 백제 사신이 372년 정월에 동진(東晋) 조정에 도착했고, 간문제(r.371-2)가 6월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 백제 왕 근초고(r.346-75)를 진동장군 낙랑태수에 배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근초고 왕이 373년에 또 동진에 사신을 보냈다고 기록을 했는데, 진서에는 백제의 사신이 384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진서는 386년에 효무제 (r.372-96)가 침류왕(r.384-5) 혹은 진사왕(r.385-92)을 사지절도독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배 했다고 기록을 하는 등, 다양한 백제관련 기록 이 나타난다.

**야마도 왕국의 시조: 호무다(褒武多/品陀/譽田/應神)**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호무다(오오진)를 제1대가 아니라 제15대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사학자들이 야마도 왕국은 호무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쯔다 소오끼치(津田左右吉 1873-1961)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호무다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야마도 왕족을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지배자로 만들기 위해, 모두 조작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쯔다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시조 진무(神武) 이후 신공왕후의 남편이라는 주우아이(仲哀) 왕까지의 (즉 2대부터 14대 왕까지의) 13명의 왕들은, 단지 죽은 다음에 만들어서 부여된 시호(和風諡號)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명칭들을 검토 해 보면, 전혀 각자의 고유성이 없다. 반면, 15대 왕이라는 호무다부터는, 각기 왕자 때부터 실제로 사용된 고유한 이름을 그대로 왕의 시호로 기록 했다. 오오진의 왕자 때 이름은 호무다(褒武多/品陀)이고 시호도 호무다(譽田)이다. 진무나 오오진 이라는 명칭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 된 명칭들이 아니라, 8세기 후반에 새삼 중국식으로 만들어 부친 시호들이다.

쯔다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14대 왕이라고 하는) 주우아이 왕까지의 왕위 승계 형식을 보면,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한족 왕조의 전통인) 부자간의 왕위 승계란, 7세기 후반 덴지(天智 r.662-71) 이후에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던 것이다. 오오진 이후 덴지 이전의 왕위 승계는 대부분 부자간이 아니라 형제간의 승계이었다. 나는 야마도 왕국이 오오진(호무다)으로부터 시작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쯔다가 제시하는 근거에 추가 해서) 네 가지 더 제시 한다.

첫 번째의 추가 근거. 쯔다는 오오진(=호무다) 이전의 왕위 승계가　모두 부자간의 승계라는 특이점에 의혹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왕위 승계가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오오진 이후를 보자. 오오진에서 닌토쿠(仁德)로 승계될 때, 한바탕 골육 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닌토쿠에서 리츄우(履中)-한제이(反正) 형제로 승계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골육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한제이에서 닌교오(允恭)로 승계될 때, 유혈극은 아니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닌교오에서 안코오(安康)-유략쿠(雄略) 형제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도, 또 한바탕 골육상쟁의 유혈극이 있었다. 유략쿠-세이네이(淸寧)에서 겐조오(顯宗)-닌켄(仁賢) 형제로 승계될 때에도, 또 닌켄-부레츠(武烈)에서 게이타이로 승계될 때에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형제간의 왕위 승계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왕위 승계가 항상 순탄치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오오진 이후의 고사기-일본서기 기록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의 추가 근거.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14대 왕이라는 주우아이가 죽었다는 200년부터 15대 왕이라는 오오진이 270년에 즉위할 때까지 장장 69년에 달하는 공백 기간(201-69)을, 자타가 공인하는 가공의 존재인 신공왕후가 섭정을 하며 채우고 있다. 신공왕후는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왜 여왕 비미호라는 존재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조한 가공의 인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오진(=호무다) 부터가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세 번째의 추가 근거. 712년에 고사기가 편찬 완료되자, 야마도 조정은 즉시 전국에 명을 내려, 각 지방의 토산품, 특이한 동식물, 토지 비옥도, 지명의 유래, 구전돼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조사하고, 기록을 해 올리도록 했다. 이들 기록은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편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들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하리마 풍토기(播磨風土記)는, 713-15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독자로 하여금 호무다가 야마도 왕국의 시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예컨대, 호무다는 수없이 순행과 사냥을 하고, 수 많은 지명들이 호무다의 사소한 언행들과 연관 지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네 번째의 추가 근거.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모든 왕들 중에 유독 공식적 시조인 진무와 15대 왕이라는 오오진(호무다)만이 큐슈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을 했다. 진무는 황족의 조상신인 천손 니니기(邇邇藝)가 하늘에서 큐슈로 내려온 다음 얼마 후에, 또 오오진은 모친(신공왕후)이 한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와서 큐슈에 상륙한 직후에, 각기 태어난 것으로 기록된 것 이다. 진무는 큐슈에서 동정(東征)의 위업을 이루는 장도에 오르는데, 갓난 아기 호무다는 큐슈로부터 모친(신공)과 함께 축소판의 동정을 수행한다. 공식적 시조인 진무와 15대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호무다(오오진) 만이, 오로지 야마도 지역의 무뢰한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큐슈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이 두 개의 존재가 바로 야마도 왕국의 시조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부여-고구려-백제 건국 신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 신화**

고구려의 건국 설화와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는 그 핵심적인 주제(motives)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하늘 나라에서 천신 혹은 일신(日神)의 아들이 (역사적으로 분명 하게 구명되지 않은 장소로) 내려오고, 그 땅의 토착 통치자는 자리를 피해준다. 이 천제(天帝) 혹은 천신의 아들은 물의 신, 즉 하신(河神) 혹은 해신(海神)의 딸과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다. 천제의 아들 혹은 천손이, 명을 받고 하늘 나라에서 내려(降)와 지상의 세계를 다니다가, (물의 딸인) 미인을 만나고 (그녀의 부친으로부터) 정말로 신의 아들인가 시험을 받은 다음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대목에서는, 양쪽의 표현 기법까지도 똑같다. 그런데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은, 완전히 인간화된 아들을 낳은 다음,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한다. 인간세계 왕국의 건국 시조를 낳는 역사적인 역할이 끝나면, 이들 남녀가 각기 제고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숙명 역시 똑같은 구도인 것이다. 여기까지가 신대에 속하는 신화가 된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혹은 그의 아들)가 자라나서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장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 부분이, 완전히 인간화 된, 인대(人代)의 전설이 된다. 인간세계의 시조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구명된 장소로 가는 도중에, 거북들 혹은 거북을 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설화의 끝부분을 보면, 고사기-일본서기의 건국 설화는 백제의 전설과도 일치한다. 즉, 형은 새로운 왕조의 창건에 실패를 하고, 동생이 성공을 한다는 공통 주제를 발견한다. 백제의 건국 설화를 보면, 형 비류는 해변가로 가서 실패를 하지만, 동생 온조는 내륙 산악 주변에 정착을 해, 새 왕국을 세우는데 성공한다. 고사기-일본서기에서는 진무의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산과 잘 어울리고, 그 형은 물과 잘 어울리는데 결국 실패해 동생에게 신속(臣屬)을 하게 된다. 진무 자신도 아래 동생이고, 형은 동정 중 첫 번째 육지 전투에서 전사한다. 호무다 (오오진) 역시 두 번째 아들이고, 그 형에 대해서는 고사기-일본서기에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 백제 건국 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후에 고사기-일본서기의 건국 설화를 쓴 사람들에게 추가 적인 영감의 출처가 되었을 수 있다. 부여-고구려와 동일한 근원에서 유래한 건국 설화가 (고구려에서 유래한) 백제 사람들을 통해 일본열도로 도입되어, 최소의 수정을 가한 후,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가 된 것이다.

**니니기(邇邇藝)-이하레(伊波禮, 神武)-호무다(褒武多, 品陀, 譽田, 應神): 삼위일체**

고사기 상권 신대(神代) 기록을 읽어 보면, 해의 신 아마데라스의 손자 니니기(邇邇藝)가 신화상의 시조로 등장한다. 고사기 중권 인대(人代)는 속세 왕국의 시조인 진무(=伊波禮)로부터 시작을 해, 15대 왕 호무다(오오진)로 끝을 맺는다. 나는 고사기 상권에 일신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니니기와, 중권의 첫머리와 끝부분에서 각각 지상왕국의 시조 이하레(=진무)와 15대 왕 호무다 (=오오진)로 기록된, 이 세 명의 상이하게 기록된 존재가, 야마도 왕국의 실제 시조인 호무다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기록이라고 추정한다. 야마도 왕국의 시조에 대한 신화적인 기록은 니니기 부분이 담당하고, 전투와 정복의 기록은 이하레=진무 (神武) 부분이 담당하고, 백제 사람들의 대규모 도래 기록은 호무다=오오진(褒武多,品陀,譽田,應神)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이하레= 호무다=니니기는, 야마도 왕국의 건국 설화 속에서, 한 사람의 시조의 세가지 측면을 나누어 그리는 삼위일체의 존재인 것이다.

**고사기-일본서기가 제공하는 정복 시기와 정복 과정에 관한 단서들**

일본서기 461년 조의 무녕왕 출생기록 내용은 무녕왕릉 지석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 한다. 그런데 일본서기가 기록하는 기원전 660년부터 461년 사이의 기간 중 특이하게도 375-405년의 30년 기간만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정확히 120년의 괴리를 유지한다. 일본서기는 신공왕후 섭정 55년에 (즉 일본서기가 255년으로 설정한 해에) 백제의 초고왕(근초고왕)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왕자 귀수(근구수)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을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이 죽은 해가 바로 375년이다. 섭정 65년 조는, 백제 침류왕이 죽자 어린 왕자 아화의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탈취했다고 기록을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265년이 아니라 385년이다. 일본서기는 호무다(오오진)의 즉위 원년이 270년이라 한다. 그런데 백제의 전지(直支) 왕자가 오오진 8년, 즉 277에 야마도 조정에 온 것으로 기록을 했다. 삼국사기는 전지 왕자가 야마도 조정에 보내진 것이 397 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또 일본서기는 백제 아신(阿花)왕이 오오진 16년(285)에 죽었다고 기록했으나, 삼국사기는 405년에 죽었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일본서기와 삼국사기를 비교해 보면, 호무다가 왕위에 오른 즉위 원년은, 270년이 아니라, 390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일직이 Aston은, 일본서기의 246-65 (즉 366-85) 기간 중의 기록도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 즉, 375-405년 기간의 120년 교정 방법을 앞으로 9년 더 연장을 해, 366-74년 간의 기록도 해당 연도를 추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366년(246년)에 해당하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가야 연맹의 일원인 탁순국의 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지난 364년 어느 날, 구저, 미주류, 막고라는 이름의 백제 사람 3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동방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백제 왕[근초고]께서 신들을 귀국 조정에 보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임금님께서 틀림없이 후한 사례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 나[탁순왕]는 구저 일행에게, ‘나도 바다 건너 동쪽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소만, 우리와 그 나라 사이에는 험한 파도가 치는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도 준비를 안하고 어떻게 갈 작정이요?’라고 말을 해 주었소. 그러자 구저 일행은,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곳을 찾아갈 방법이 없겠습니다. 돌아가서 선박을 확보할 방도를 마련한 다음, 차후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소.”

독자는 일본서기의 이 기록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364년 당시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고, 마한은 한반도의 서남부를 아직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백제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가는 길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없었을 것이다. 야마도 왕국의 창건자 호무다가, 한 무리의 백제 사람들을 이끌고 일본열도로 건너간 것은, 백제 왕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탐색대를 남쪽 탁순국으로 보냈던 364년으로부터 그리 먼 훗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계속되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백제 장군”들이 이끄는 야마도 군사에 의한 대규모 한반도 침공 얘기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369년에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병을 한 것이 바로 신공왕후라는 것이다. 말인즉, 야마도 군대가 탁순에 도착했을 때, 그들 군대 규모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원군 파견을 요청했으며, 얼마 후, 분명히 백제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장군이 이끄는 증원군과 합류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함께 신라를 정복하고, 탁순을 비롯해 6개의 나라를 평정한다. 여기서 그들 군대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방 야만족을 정복 하고, 그 정복한 땅들을 모두 「백제」에게 하사한다. 바로 그 시점에서 “백제의 근초고 왕과 태자 수”가 합류를 한다는 얘기다.

만약 독자가 일본서기에 기록된 이 군사적 활약을 당시 일본열도의 왜인들 작품으로 이해 한다면, 목라근자 같은 백제 장수들이 왜군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을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또 왜군이 차후에 그들이 정복했다는 지역을 어떻게 먼저 통과 해 탁순에 도달을 했다는 것인지; 왜군이 어떻게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복을 했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길이 없다. 하지만 독자가 일단 이 모든 군사 행동을 백제 사람들의 작품으로 간주한다면, 일본서기의 기록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얘기가 된다. 일본서기는 백제의 근초고 왕과 일본열도로 떠나는 “야마도 장군들”이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며 작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일본열도로 향해 출발하는 야마도 군사를 (백제 왕족의 일원인) 호무다가 이끄는 일단의 백제 전사들로 이해하면 모든 기록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정복 초기 단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구려 고국원왕(331-371)의 즉위 9년이 되는 해에 전연(前燕) 모용황(慕容皝)은 신성(新城)까지 쳐들어 왔었고, 342년에는 환도성까지 침입하여 미천왕의 능을 파서 시체를 싣고 왕비, 왕모를 포함해 5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미천왕은 일직이 313년에 낙랑군을 축출 해버린 고구려 15대 왕이다. 당시 고구려는 요동을 병합한 선비족 모용씨의 팽창으로 심각한 시련기에 처해 있었다. 반면 백제의 근초고왕은 369년경에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마한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였으며, 371년 에는 평양을 공격하여 고국원 왕을 전사시켰다. 광개토 대왕(391-412)이 출현하기 이전의 4세기는, 백제가 이웃 국가 들과의 무력 충돌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한 시기였다. 백제의 군사력과 영토 확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근초고왕(346-75)과 그의 아들 근구수왕(375-84) 재위 시기가,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 정복을 하고 마침내 (390년경에) 일본열도의 최초 통일국가인 야마도 왕국을 세운다는 모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